

칼빈의 성경해석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김·성·수

Calvin's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ACTS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교사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성경교사들이 마음을 놓을 때 그들은 성경해석을 호기심을 풀어주는 수단이나 단순한 학문의 한 영역으로만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교회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단순히 대학의 학문적 영역 속에서만 다루어졌을 때, 성경해석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피해를 우리는 19, 20세기의 고등비평가들의 성경해석 속에서 보아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로부터 성경을 빼앗는 행위였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할”<sup>1)</sup> 성경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 오히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경해석, 사람들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성경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칼빈의 성경해석의 원리와 방법은 오늘날의 성경교사들이 성경을 교회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해 준다.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해석해서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신학자의 역할이었음을 칼빈은 잘 알고 있었다. 본고는 칼빈의 시편 주석에 나타난 성경 해석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의 성경 해석 원리들이 오늘날의 성경 해석에 주는 시사점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 1 칼빈의 성경 해석의 두 전제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Simon Grynaeus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그의 주석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즉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료한 간결성(lucid brevity)”을 그 원칙으로 삼는다고 천명하고 있다.<sup>2)</sup> 그래서 그는 그의 주석의 방법을 주제 중심으로 하는 멜랑히톤(Melanchton)의 주석 원리나, 각 구절들에 대해 긴 신학적인 논의들을 하는 부처(Bucer)의 것과 차별화한다.<sup>3)</sup> 그는 주제 중심으로 주석하지 않고 성경

1)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92.

2)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 and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printed in 1998), xxiii-xxviii.

의 각 구절들을 순서대로 주석하되 번잡한 신학적 논의들을 빼고 가능하면 본문  
의 특성을 따라 간결하게 주석하려고 애를 썼다.<sup>4)</sup>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 서문  
("Calvin's Epistle Dedicatory to Henry, Duke of Vendome")에서도 이와 같  
은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그가 오경을 주석하는 목적도 고대 교회, 즉 오경  
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그의 교회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석 방법  
도 최대한 간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sup>5)</sup> 다음에 인용한 그의 시편 주석 서문도  
비슷한 칼빈의 해석 원리를 보여준다.

If the reading of these my Commentaries confer as much benefit on the  
Church of God as I myself have reaped advantage from the composition  
of them, I shall have no reason to regret that I have undertaken this  
work.<sup>6)</sup>

...I am sensible that it would have been much more agreeable to the  
taste of many, had I heaped together a great mass of materials which has  
great show, and acquires fame for the writer; but I have felt nothing to be  
of more importance than to have a regard to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sup>7)</sup>

이러한 해석 원리 속에서 우리는 칼빈이 갖고 있는 성경해석가로서의 겸손과  
본분에 대한 성실성을 본다. 이러한 칼빈의 태도는 칼빈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즉 "Divine Rhetoric"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3) Ibid., xxv-xxvii.

4) David C. Steinmetz, "John Calvin on Isaiah 6: A Problem in the History of  
Exegesis," *Interpretation* 36 (April, 1982), 158.

5)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printed in 1998), li-iv.

6)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printed in 1998), xxxv.

7) Ibid., xlix.

8) Richard Gamble, "Short Studies: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보자로 삼는 신앙과 회개의 특수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sup>9)</sup>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며,<sup>10)</sup>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기관인 인간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sup>11)</sup>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칼빈은 성경해석을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예: 그의 다니엘서 7:1,2 주석; 예레미야 10:23 주석). 이것은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신 인간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예: 칼빈의 시편 8:2 주석).<sup>13)</sup> 칼빈은 위에서 언급한 로마서 서문에서 해석자의 유일한 과업은 “성경 저자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we both thought that the chief excellency of an expounder consists in lucid brevity. And, indeed, since it is almost his only work to lay open the mind of the writer whom he undertakes to explain, the degree in which he leads away his readers from it, in that degree he goes astray from his purpose, and in a manner wanders from his own boundaries.<sup>14)</sup>

또한 칼빈은 천사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것, 즉 교회의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탐구하고 묵상해야 함을 경고한다.

---

*Theological Journal* 49 (1987), 163-164.

9) 존 칼빈, 『基督教綱要』, 김종흡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I.vi.2-3.

10) 『基督教綱要』, I.ix.2.

1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printed in 1998), 248-250.

12) 『基督教綱要』, II.ii.21.

13) 칼빈의 성경해석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데이빗 L. 퍼켓, “칼빈의 성경해석의 두 가지 전제”, 목회와 신학 역, 『그 말씀』 1997년 10월호, 44-65를 참조하라.

14)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xxiii.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sup>15)</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전제를 건지했던 것 같다. 첫째는,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해석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교회의 교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이상의 칼빈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다음 단락에서 살펴 볼 칼빈의 역사적-문법적 해석에 의해서 구체화 되어졌다.

## 2 칼빈의 역사적-문법적(Historical-Grammatical) 성경해석

칼빈의 성경 해석을 역사적-문법적(혹은 문자적, literary) 해석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본문 배후나 밑에 있는 역사가 아닌 성경 본문 안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히브리어의 문법과 표현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하는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성경해석은 종교개혁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한다.

R. A. Muller는 그의 논문에서 종교개혁 시대를 포함한 고등비평 이전의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sup>17)</sup>

15) 『基督教綱要』, I.iv.4.

16) Hans-Joachim Kraus는 그의 논문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trans. Keith Crim, *Interpretation* 31 (1977), 9-12에서 칼빈의 해석의 두 가지 전제를 성령의 내적 조명(inner witness of the Holy Spirit)과 교회의 교화(the edification of the church)라고 주장하고 있다.

17) R. A. Muller, “The Significance of Precritical Exegesis: Restrospect and Prospect,” i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Essays Presented to David C. Steinmetz in Honor of His Sixtieth Birthday*, ed. R.A. Muller and J. L.

(1) 비평 이전 시대의 성경 해석자들이 다룬 성경 본문의 역사는 그 본문의 문자와 문법적 표현이 지시하는 역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비평학자들이 말하는 본문 배후의 역사나 밑의 역사가 아니었다.<sup>18)</sup>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 시대의 성경해석자들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본문을 초월하는 의미가 아닌 성경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sup>19)</sup>

(2) 종교개혁시대의 성경해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전체 성경 속에서의 해석이었다. 즉 그들은 신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했다. 예를 들면 신약에 인용된 시편의 관점에서 시편을 해석했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기도 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충실한 해석이었다.

(3) 본문의 문자적 혹은 문법적 의미를 본문을 기록한 역사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전수받고 앞으로 계속 받을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하였다. 본문의 문법적 혹은 역사적 의미를 교회가 믿고, 행하고, 소망해야 할 것들에 적용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해석은 중세 시대까지의 사중적 성경해석 원리(fourfold exegesis, *quadriga*)와 연결되는 면이 있다.<sup>20)</sup>

(4) 비평 이전 시대의 성경 해석은 철저하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의 해석이었다. 믿음의 공동체와의 대화 속에서 성경을 해석했기에 성경 해석자는 교회의 교사였고 열린 해석자였다. 비평 이후 시대의 해석자들처럼 그들의 해석을 학문적인 영역 속에 가두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해석 원리의 관점에서 역사적-문법적 성경해석은 단순히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 문맥 속에서 그 문자적 의미를 다루는 것이며, 특별히 성경

Thomps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339-342.

18) R.A. Muller,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16th & 17th Centuries," in *Historical Handbook of Major Biblical Interpreters*, ed. D. K. McKim (Downers Grove, Ill: InverVarsity Press, 1998), 124.

19) Ibid.

20) R. A. Muller,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i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Essays Presented to David C. Steinmetz in Honor of His Sixtieth Birthday*, ed. R.A. Muller and J. L. Thomps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9.

## 84 ● ACTS 신학과 선교

전체에 나타나 있는 원래 저자의 의도로서 그 역사적-문법적 의미를 다루는 것이다.<sup>21)</sup> 그래서 칼빈이 선지서의 본문을 해석할 때의 본문의 문법적 의미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서의 의미이다(예-이사야 7:14). 또한 비유적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의 문법적 의미란 비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유가 지시하는 의미인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적-문법적 성경 해석의 일반적 원리는 칼빈의 성경 주석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시편 주석을 중심으로 칼빈의 역사적-문법적 성경 해석 방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 칼빈은 시편을 주석하면서 먼저 시편에 대한 서론을 썼다.<sup>23)</sup> 시편을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그의 주석 방법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시편을 “영혼의 모든 면들을 담고 있는 해부학(An Anatomy of all the Parts of the Soul)”이라고 정의한다.

I have been accustomed to call this book, I think not impropriately, “An Anatomy of all the Parts of the Soul;” for there is not an emotion of which any one can be conscious that is not here represented as in a mirror. Or rather, the Holy Spirit has here drawn to the life all the griefs, sorrows, fears, doubts, hopes, cares, perplexities, in short, all the distracting emotions with which the minds of men are wont to be agitated.<sup>24)</sup>

칼빈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계명들을 기록한 반면에, 시편은 시편가자들이 하나님께 모든 내면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기록하였다고 말한다.<sup>25)</sup> 그런 관점에서 시편은 천상의 교리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한다.<sup>26)</sup> 칼빈은 그래서 시편을 우리의 필요와 하나

21) R. A. Muller,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16th & 17th Centuries,” 129.

22) Ibid., 129.

23) John Calvin, “The Author’s preface,” 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1,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printed in 1998) xxxv-xlix.

24) Ibid., xxxvii.

25) Ibid.

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수하고 진지한 기도의 책으로 소개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찬양의 책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순종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구원을 알려주는 교훈의 책으로 소개하고 있다.<sup>27)</sup> 이어서 그는 다윗을 시편의 제일 중심적인 인물로 보면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과 인내와 열정과 고난을 칼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연결하여서 보여주고 있다.<sup>28)</sup> 결론적으로 칼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주석이 교회의 교화를 위해서 간결하게 기록되었음을 알린다.<sup>29)</sup>

2) 칼빈은 각 시편을 주석하면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다룰 시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저자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서론을 썼다. 시편 1편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에스라나 혹은 다른 사람이 시편들을 수집하여 하나로 묶을 때 시편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시편 1편을 위치시켰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시편 성경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면서 동시에 시편 성경을 읽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He who collected the Psalms into one volume, whether Ezra or some other person, appears to have placed this Psalm at the beginning, by way of preface, in which he inculcates upon all the godly the duty of meditating upon the law of God.<sup>30)</sup>

시편 2편에 대한 서론에서는 표제에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윗을 이 시편의 저자로 보면서, 다윗 시대의 관점에서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이 시편을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와 예언으로 본다.<sup>31)</sup>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 120-134편의 제일 첫 시편인 120편 주석에서는, 서론 없이 이 표제의 히브리어가 가리키는 의미에 대해서 다소 길게 토론하고 있다. 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음악적으로 높은 음조를 나타내

26) Ibid.

27) Ibid., xxxvii-xxxix.

28) Ibid., xxxix-xlvi.

29) Ibid., xlix.

30) Ibid., 1.

31) Ibid., 9.



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sup>32)</sup> 또 다른 표제에 대한 해설의 예는 시편 4편의 주석에서도 볼 수 있다.<sup>33)</sup>

3) 칼빈은 또한 시편을 주석을 할 때 각 시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내용의 구조에 따라 절들을 분리해서 주석을 한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서는 1-2절; 3절; 4절; 5-6절로 구분에서 주석을 하고 각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각 구절의 주변 문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3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3절을 선행하는 1-2절을 설명하고 확증하는 비유로 보고 있다.

The Psalmist here illustrates, and, at the same time, confirms by a metaphor, the statement made in the preceding verse; for he shows in what respect those who fear God are to be accounted happy, namely, not because they enjoy an evanescent and empty gladness, but because they are in a desirable condition.<sup>34)</sup>

그러면서도 칼빈은 각 절에 대한 성실한 주석을 하고 있다. 즉 중요한 주제만 다루지 않고 각 절이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독자들에게 빠뜨림 없이 설명한다.

4) 칼빈은 자주 번역이나 해석에서 논쟁이 되거나 중요한 단어나 문구들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다. 시편 2편 12절과 5편 3절에 대한 칼빈의 아래 주석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Some interpreters, I know, explain the Hebrew word , צמח צמוח *Camoat*, which we have rendered, in a moment, in a different way, namely, that as soon as God's wrath is kindled in even a small degree, it will be all over with the reprobate. But it is more suitable to apply it to time, and to view it as a warning to the proud not to harden themselves...<sup>35)</sup>

As צמח *tsapah*, in Hebrew means, *to wait for*, as well as *to look for*,

32)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5, 52-54.

33)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1, 36.

34) *Ibid.*, 5.

35) *Ibid.*, 25.

David, I have no doubt, intended to say, that after he had disburdened his cares into the bosom of God, he would, with an anxious mind, look out, as it were, like a sentinel, until it should appear, that in very deed God had heard him.<sup>36)</sup>

이러한 예들은 칼빈이 성경의 원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가 성경의 원 저자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는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칼빈의 해석을 문자적 혹은 문법적 해석이라고 부를 때, 가장 기초적인 칼빈의 해석은 원어에 대한 철저한 번역과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은 그의 번역과 해석을 70인경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고대의 헬라와 라틴 교부들의 해석과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sup>37)</sup> 하지만 그는 오늘날의 학자들이 여러 히브리 본문들과 70인경등의 고대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확정하는 “본문 비평” 작업에 대해서는 그의 주석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5)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sup>38)</sup>이라고 했지만, 이 말이 그의 주석에서 성경 본문의 수사법이나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특징들만을 중시함으로써 성령께서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수사적인 특징들을 올바르게 관찰하여 성령께서 각 본문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칼빈의 해석 방법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대한 본문들을 다루는 그의 해석일 것이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 26:26; cf. 11:24)고 하였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라고 하신 성찬 제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것은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떡이나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

36) Ibid., 54.

37) 예를 들면 시편 71편 15절의 주석에서는 70인경의 해석을 반대하고 있다: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3, 91. 헬라와 라틴 교부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참조는 그의 시편 16:10 주석을 참조하라.

38) 『基督教綱要』, I.viii.2.

징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징은 그 의미하는 것과 본질이 다르지만 후자는 영적이며 하늘의 것이요 전자는 물질적이며 지상적이므로, 상징은 성별에 의해서 대표하게 된 그 본체를 상징하는 단순한 빈 표일 뿐 아니라 그 본체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본체에 붙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sup>39)</sup>

이러한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에 따라 해석을 하려고 하는 칼빈의 노력은 그의 시편 주석 곳곳에서 보인다. 시편 1편 3절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라는 비유를 해석할 때 그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받아 끊임없이 번영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Those who explain the figure of the faithful *bringing forth their fruit in season*, as meaning that they wisely discern when a thing ought to be done so as to be done well, in my opinion, show more acuteness than judgment, by putting a meaning upon the words of the prophet which he never intended. He obviously meant nothing more than that the children of god constantly flourish, and are always watered with the secret influences of divine grace, so that whatever may befall them is conducive to their salvation.<sup>40)</sup>

또한 칼빈은 시편 121편에 대한 주석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4절)를 주석하면서 왜 두 동사의 순서를 일반적인 순서와 거꾸로 배치를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is form of expression, *he will not slumber nor sleep*, would be improper in other languages, according to the idiom of which it should rather be, *He will not sleep, yea, he will not slumber*: but when the Hebrews invert this order, they argue from the greater to the less. The sense then is, that as God never slumbers even in the smallest degree, we need not be afraid of any harm befalling us while he is asleep.<sup>41)</sup>

39) 『基督教綱要』, IV, xvii.20-23.

40)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1, 7-8.

또한 121편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를 해석할 때,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제유로 이해하면서 이 표현들은 모든 종류의 불편함을 가리킨다고 한다.

...by the figure synecdoche, under one particular, he declares in general that the faithful shall be safe from all adversities, defended as they are by Divine power. The language is metaphorical, the cold of night and the heat of day denoting all kind of inconveniences.<sup>42)</sup>

또한 그는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확실한 교정을 위한 저자의 의도라고 해석한다.<sup>43)</sup> 그리고 시편 122편 5절의 “보좌”라는 단어의 반복도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sup>44)</sup>

이상에서 살펴 본 칼빈이 갖고 있었던 성경 본문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민감함은, 역시 성경 본문의 원래 의도를 밝히기 위한 그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문학적 특징 자체를 강조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다만 칼빈의 문법적 성경해석은 문법적으로 연결된 문자들의 문학적 특징까지도 관찰하여,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칼빈의 해석은 또한 철저하게 그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역사서들에 대한 주석은 말할 것도 없고 시편에서도 철저하게 특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124편이다. 그는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자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나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탄압 속에서 유대인들이 고난 받던 때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 시대까지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4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5, 66.

42) Ibid., 67.

43) Ibid., 68.

44) Ibid., 76. 이러한 칼빈의 이해는 그 이전까지 이런 문학적 특징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에 대한 회고가 그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It is more probable that David here sets forth a known history, and exhorts the faithful to reflect upon the divine succor which they had already actually experienced...but as David does not specify any particular instance, he is not, I conceive, to be understood as celebrating only some one deliverance, but in general all the instances in which God had succored his Church.<sup>45)</sup>”

하지만 칼빈의 이러한 해석은 외부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가져옴으로써가 아니라 그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예로 시편 2편에는 표제에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것임을 관찰한 후에 다윗의 저작으로 돌리고 있다.<sup>46)</sup>

그는 시편 성경이 여러 시편들이 수집되어서 하나로 묶여진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각 시편 본문들의 뒤나 밑의 역사, 혹은 본문 편집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본문이 문자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역사가 그의 해석의 대상이 되는 역사였다.

7) 칼빈은 또한 성경의 본문을 분명히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을 인용하거나, 단어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쓰인 용례를 소개하거나, 신약에서 인용한 관점을 도입하면서 구약의 구절을 설명했다.

첫 번째 예는 그의 시편 122편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에 대한 주석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와 언약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무엘상을 인용하고, 본문의 본래 의미를 강조를 위해서 시편 132편 14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의 신약에서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의 구절도 인용한다.

“The ark, it is true, dwelt a long time in Shiloh, (1 Sam. I,3) but God having made no promise concerning that place, it could not be the permanent abode of that symbol of the divine presence. On the contrary,

45) Ibid., 84-85.

46)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1, 9.

since, as we shall see on Psalm cxxxii, 14, it was said of mount Zion - "This is my rest for ever," the faithful, depending upon that promise, confidently boast that their feet shall hereafter be at rest and stand firm. Farther, as Christ, "in whom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Col. ii. 9) and who is our true Immanuel, (Isaiah vii. 14) now resides amongst us, he has furnished us with matter of more abundant joy.<sup>47)</sup>

두 번째 경우의 예는 칼빈의 시편 122편 6절에 대한 주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주석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구절이 이사야서 54장 이후에 자주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This sentence frequently occurs in the Prophecies of Isaiah, from the 54th chapter to the end of the book."<sup>48)</sup> 또한 칼빈은 시편 1편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주석하면서 시편 37편 35절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과 비교하고 있다.<sup>49)</sup>

세 번째 경우의 예는 칼빈의 시편 2편 1-2에 대한 주석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시편 2편 1-2절에 대한 주석에서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 대해 대적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에서 위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That the kingdom of Christ is here described by the spirit of prophecy, is sufficiently attested to us by the apostles, who, seeing the ungodly conspiring against Christ, arm themselves in prayer with this doctrine, (Acts iv. 24).<sup>50)</sup>

좀 더 분명한 예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을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sup>51)</sup> 이 외에도 칼빈은 시편 128편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 127편의 연장선상에서 주석

47)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5, 71-72.

48) *Ibid.*, 77.

49)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1, 77.

50) *Ibid.*, 11.

51) *Ibid.*, 361.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주석 방법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의 해석 원리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신구약의 통일성을 고백하였기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관점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미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석 원리였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칼빈은 충실하게 그의 해석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성경해석자들처럼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칼빈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칼빈의 문법적-역사적 성경 해석은 가까운 문맥만이 아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8) 칼빈은 또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단순히 본문의 문법적 의미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러한 문법적-역사적 의미들을 반드시 자신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적용 원리는 칼빈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예언하는 본문을 다룰 때 시중적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의 회복 >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국의 회복 -> 16 세기 종교 개혁 속에서의 왕국의 전진 ->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왕국.<sup>52)</sup>

이러한 해석의 예는 칼빈의 시편 2편 1-3절에 대한 주석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이 구절들을 일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왕국에 적용한다.

...I would briefly inform my readers, that as David's temporal kingdom was a kind of earnest to God's ancient people of the eternal kingdom, which at length was truly established in the person of Christ, those things which David declares concerning himself are not truly predicted concerning him.<sup>53)</sup>

또한 칼빈은 시편 120편을 주석하면서, 거짓된 말로서 다윗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내의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자들로 해석하면서, 칼빈 당시의 로마교회(the Church of Rome)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52) R. A. Muller,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11.

53)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1, 11.

다.<sup>54)</sup>

뿐만 아니라 칼빈의 시편 124편 1절에 대한 해석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적용은 그의 모든 시편 해석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The heathen at may different times, as is well known, rose up against the Church, with such mighty hosts, that she was brought almost to the verge of destruction. David then represents as in a mirror the uncertain and changeable condition of the Church, just such as it had been from the beginning, to teach the faithful that its stability had not been owing to its own intrinsic strength, but that it had been preserved by the wonderful grace of God; and to habituate them to call upon God in the midst of dangers.<sup>55)</sup>

그의 시편 서론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의 주석은 원래 교회를 위해서 그가 강의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sup>56)</sup> 또한 그가 그 강의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석으로 출판하는 이유도 “교회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그의 주석 전반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항상 본문의 역사적-문법적 의미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주석은 교회의 성경 교사로서 칼빈이 교회를 위해서 행한 섬김의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의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이성과 대학의 학문의 테두리로 가두어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해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오늘날의 성경해석과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이제 칼빈의 역사적-문법적 성경 해석이 그의 시편 주석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요약해 보자: 1. 시편 서론에 나타나듯이 시편 전체의 신학적 목적 내에서 각 시편의 의미를 밝히는 것; 2. 각 시편의 신학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각 시편의 서론); 3. 각 시편의 문맥과 문학적 특징을 따라 해석하는 것; 4. 각 시편을 기록한 원어와 그것의 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해석하는 것; 5. 각 시편의 내용이 보여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 6. 성경 전체의 문맥, 특별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각 시편을 해석하는 것; 7. 이상의 시편 해석은 오직 원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 8. 시편 해석은 반드시 교회의 교화를 위해

54)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vol. 5, 60.

55) *Ibid.*, 85.

56)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xxxv.



## 94 ● ACTS 신학과 선교

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

다시 요약하자면, 칼빈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하나님께서 말씀씀을 기록하신 의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본문을 해석했고, 그러한 역사적-문법적 해석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기여했다.

### 3 칼빈의 해석 방법이 오늘날의 성경해석자들에게 주는 의미

칼빈은 성경교사로서 성경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을 성실하게 가르쳤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밝힌 바 있는 목사와 교사의 임무였다.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sup>57)</sup>

위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보물이야말로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sup>58)</sup>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성경 해석의 기준이요 목적이다. 성경 속에서 복음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이 칼빈이 믿었던 성경 교사의 임무였다. 칼빈은 그의 주석을 통해서 이런 교사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그가 그의 주석에서 보여준 중요한 성경해석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칼빈은 성경이 복음의 중심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

57) 『基督教綱要』, IV.i.1.

58)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 91.

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각 본문을 해석했다. 칼빈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항상 모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썼다. 더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였다.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

둘째는, 성경해석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기여해야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성경 해석의 원리였다. 칼빈이 “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최대한 학문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간결하게 본문의 의미를 전달한 것은 오늘날의 성경해석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문적 토론만을 위한 도구로 성경해석이 사용될 때에 그것이 갖는 위험성을 칼빈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칼빈은 성경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칼빈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문법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언어학적, 문학적, 역사학적인 지식들을 동원했다. 문학적이고 역사학적인 방법은 고등비평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런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밝히도록 주신 선물이다.<sup>59)</sup>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도구들이 “만일 진리의 견고한 기초가 그 밑에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이라”<sup>60)</sup>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신앙의 방해물로 삼지 말도록(not to turn benefits into hindrances)” 주의해야 한다.<sup>61)</sup> 칼빈은 도구를 도구로 사용했다. 도구를 위해서 성경본문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역사적 탐구의 도구로나 문학적 탐구의 대상으로만 성경을 전락시키지도 않았다. 칼빈 이후에 발견된 성경을 해석하는데 유익한 학문적 업적들이나 도구들까지 이용해서, 성경본문들이 주는 풍성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이 현대 성경 교사들의 사명이 될 것이다.

59) 『基督教綱要』, II.ii.16의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우리가 자연 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한다.”

60) Ibid.

61)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 84.